

나의 서원 나의 신행 <22>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68곳

'연꽃마을' 일구는 각현 스님 국제연꽃마을 회장



각현 스님은 ... 1944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196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대구 동화사 강원에서 공부했고, 1974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홍콩 중문대학 중문학부를 수료했으며 동국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의왕 청계사 주지, 홍콩 흥법원장, 법주사 부주지를 지냈다. 1990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에 취임해 현재까지 법인을 이끌며 복지 불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조계종 11대 중앙종회의원, 청주불교방송사장, 용인요양원 원장, 한국 노인문화진흥회 공동회장, 법보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2011년 12월 출범한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직을 맡고 있다.

"나의 부모 형제는 버렸지만, 더 많은 이웃의 부모 형제를 만났으며, 산사의 솔바람 소리는 뒤로 했지만,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겹고, 대강백의 꿈은 접었지만 본지풍광(本地風光) 드러내며 얽히고설켜고 사는 맛으로 위안하려나 허허로운 마음을 떨치지 못하니, 오호라, 속세의 업연을 어찌 닦아냈습니까?" 스물넷에 불가에 귀의한 스님은 20년 넘게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 더 많은 이웃의 부모 형제를 위해 살고 있다. 1990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법인을 이끌면서, 한국 불교계 복지의 지평을 넓혀온 각현 스님이다.

이제 그의 불명은 '복지'라는 배경지에 단단히 배경되어 있어서 그의 이름과 얼굴은 '복지'와 함께 떠오른다. 하지만 속세의 업연이라고 한 허허로운 그 마음 또한 새롭게 스님의 이름 위에 배경된다. 그랬다.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보게 된 스님 저서의 서문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스님의 긴 그림자를 본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는 제법 긴 그림자를 만든 것이다.

이어지는 서문에서 그 아쉬운 마음을 본다. "마음의 고향은 산사(山寺)이며, 안심입명(安心立命)은 소승의 삶의 목표입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경(經) 읽는 소리가 정겹고, 변벽구도의 수도자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일찍이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를 꿈꾸기도 했고, 옛 선사들의 행적을 흉내 내기도 싶었습니다." 법의(法衣)를 입은 사문으로 어찌 솔바람 부는 호젓한 산사의 정취와 '저쪽'이 보이는 선방의 좌복 맛을 모를까. 스님의 복지 20년은 그렇게 한 사문이 사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얻은 열매다. 스님은 "하고 싶은 일은 원력(願力)이고, 해야 할 일은 업력(業力)이다."며 길여 온 길과 아쉬움을 갈무리한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스님의 복지 서원을 원력이라 해야 할까 업력이라 해야 할까. 스님을 만나러 간다.

원력의 시작

1978년 청계사 주지로 재직할 때였다. 스님은 돌연 홍콩 유학길에 오른다. 스님은 새로운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꼈고, 결심한 것이 유학이었다. 스님은 중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홍콩 중문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스님이 공부를 마칠 때쯤 스님에게 남은 것은 중국어가 아니라 '복지'였다. 홍콩의 복지를 보게 된 것이다. 사찰 속의 복지를 보게 된 것이다. 사찰 대부분이 복지시설과 함께 하고 있었다. 복지를 통한 포교였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교'라는 생각이 스님의 가슴과 머리를 흔들고 때렸다. 복지는 자비의 또 다른 발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홍콩의 불교와 복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돌아온 스님은 '생활불교'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보았다. 1982년 귀국한 스님은 1984년 동국대 사회 복지학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복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난 스님은 고민했다. 산으로 갈 것인가. 대중속으로 갈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인연

스님이 20년 넘게 몸담게 되는 '연꽃마을'은 스님

이 이사장에 취임하기 1년 전인 1989년,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스님이 설립한다. 인연은 그랬다. 각현 스님이 복지를 공부하는 동안 성수 스님은 연꽃마을을 만들고 있었다. 성수 스님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이 나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람되고 존경받는 노년과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설립됐으며, 설립자이며 초대 이사장인 성수 스님은 이를 통해 '효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법인을 설립한지 1년이 되어 갈 무렵이었다. 법인은 설립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연꽃마을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수 스님은 연꽃마을을 이끌어 갈 사람을 하루 빨리 찾아야 했다. 백방으로 사람을 찾던 차에 각현 스님에 대해 알게 됐고, 성수 스님은 법주사로 사람을 보낸다. 각현 스님은 당황스러웠다.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실무 경험이 전혀 없었던 스님에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이고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사장에 취임해 첫 사업으로 양로원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복지'와 의 첫 인연이 너무도 큰 불사였기에 스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저 힘든 청동미륵대불 불사도 했었으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수 스님

보는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님은 복지의 꽃은 자원봉사라고 생각했다. 보시는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고 나누어라고 생각했다. 스님은 1999년부터 자원봉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현재 연꽃마을이 확보한 자원봉사는 2만에 달한다.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일이면 언제든지 달려온다.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했고, 봉사 시간에 따라 많은 혜택을 부여한 결과 연꽃마을의 자원봉사는 이제 연꽃마을의 사업을 극대화 시키는 원동력이다. 스님은 불교의 '보시정신'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나눔의식'으로 확대되길 바랐다. 그리고 이런 나눔의식의 확산과 더불어 스님은 성수 스님의 원력이기도 했던 '효 사회화 운동'을 이어가고자 했다. 스님은 복지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이 없는 나눔과 복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생각했다. 효의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노인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정신적인 공허함을 채워주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연꽃마을

그렇게 '1000원'에서 시작한 스님은 연꽃마을을 현재 파라밀요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 5곳, 파라밀 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재가노인복지시설 21곳,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관 8곳, 성동구립 금일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7곳, 연꽃경로식당을 비롯한 경로식당 11곳, 노인의 집 1곳, 파라밀양한방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 8곳, 중증장애인요양원을 비롯한 장애인시설 2곳, 송파푸드마케 등 기타사업 5곳 모두 68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최대의 사회복지재단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그곳에는 1천 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연꽃마을을 거쳐 간 이웃은 이제 헤아릴 수 없다.

"무척이나 지루한 세월이었습니다. 암암한 회색빛 골조만 쳐다보고 지낸 세월이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올려다 볼 때마다 자괴심으로 제 자신을 많이도 탓했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줄 줄도 모르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더욱 할 줄 모르는 못난 사람이, 의욕만 앞세운 결과가 한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2008년 파라밀병원을 개설하며 밝혔던 스님의 소회다. 20년을 지나오는 동안 힘든 순간이 파라밀병원뿐이었을까. 쉽지 않은 재원 마련, 커져가는 법인을 바라보는 굵지 않은 시선들, 사회전반에 부족한 복지 마인드 등으로 그야말로 '복지'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지금의 스님과 '연꽃마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손길, 연꽃마을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했던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닐 음악집에서 중풍과 싸워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할머니, 말짱한 돌아오면 외손자가 보고 싶다며 성치 않는 다리 문 밖만 서서서인 할아버지, 말 할 수 없는 아이, 듣지 못하는 아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 씻겨드려야 하는 어르신, 먹여드려야 하는 어르신.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 연꽃마을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커져야 했다. 음악집에 사시다 양로원으로 옮긴 중풍 할머니는 양로원에 오신지 6개월 만에 돌아갔다. 직원도 울고, 자원봉

홍콩 사찰 속의 복지 보고 복지 눈 떠

1993년 교계 첫 용인 무료 양로원 완공

베트남에 한국형 복지타운 추진

원력과 업력 이제 경계 두지 않아

은 각현 스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결국 각현 스님은 성수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1990년 8월 각현 스님은 연꽃마을을 2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하지만 막막했다. 기반은 너무나 열악했다. 당시 양로원이라 하면 전국에 손에 꼽을 정도 밖에 없었었다. 더욱이 불교계의 노인복지분야는 비교할 것 자체가 없었다. 복지라는 큰 틀도 문제였지만 당장 양로원 하나를 지어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1000원의 힘

스님은 차분히 처음부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양로원을 지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자금이었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때 스님이 생각해낸 것이 '캠페인'이었다. 스님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불자들의 성금으로 무료양로원을 지어주겠다고 생각했다. '무료양로원 건립 모연문'과 함께 '연꽃마을 후원 신청서'를 들고 법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신청서에는 '마을마다 연꽃마을, 마음마다 연꽃마을'이라고 적혀있었고, 매일 1000원의 후원금을 부탁했다. 3개월 만에 1만 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교계에서 양로원 건립봉사를 해본 적이 없던 당시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사장 취임 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듬해 5월 후원회원은 1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1993년 드디어 불교계 최초의 무료양로원이 완공됐다. 용인양로원이다. 불자들의 순수한 성금으로만 지어진 양로원이었다.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는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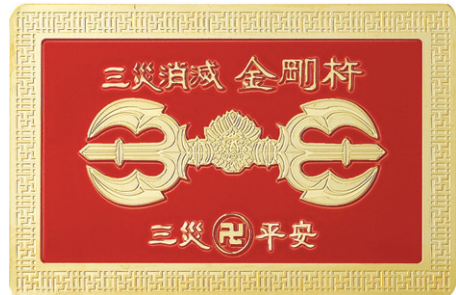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가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묶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달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풀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달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달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반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영혼의 안정이 진정한 복지”



1993년 설립된 웡인 양로원이 2010년 웡인노인전문요양원으로 다시 개원했다.



각현 스님은 2008년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2008년 개원한 파라밀요양병원



12월 12일 기공식을 갖는 베트남 '세종학당' 조감도

사자도 울고, 지린내 난다고 그렇게 싫어하던 할머니들도 울었다. 스님의 책 서문 뒤에 이어지는 사연들 속엔 스님과 언뜻마음이 반어반 아픈과 함께 나눈 눈물이 곁없이 이어졌다. 멀리 2008년에 힘겹게 완공되었던 파라밀병원이 보였다. 책을 덮고 스님을 만난다.

### 해외로 영역을 넓히다

경기도 안성 파라밀병원. 투명한 출입문 안으로 스님이 보였다. 앞자마자 스님은 두툼한 자료가 든 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베트남에 한국형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하자” 대 봉투 속에서 꺼낸 8쪽짜리 안내 책자 표지다. 그리고 그 제목 밑엔 ‘베트남 광남성 세종학당 조감도’가 그려져 있다. 작성자는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다. 각현 스님은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로부터 2만평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한국형 종합복지타운 ‘베트남 연꽃마을’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각현 스님은 2005년부터 베트남 광남성 교육위원회에 매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2011년 광남성장이 고마움의 표시로 스님에게 감사장과 함께 부지를 기증하면서, 복지시설이 열약한 베트남에 한국형 사회복지 시설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사업을 위해 (사)국제연꽃마을을 설립했다. 베트남 사업만을 전제로 한 법인이다. 스님의 복지사업은 이제 해외로 영역을 넓혔다.

탐키시에서 기증한 2만평의 부지에는 교육시설인 세종학당을 시작으로 직업훈련원, 연수원, 보육시설, 노인요양원, 병원, 재활시설 등이 세워질 예정이며, 그 중 1차 사업으로 올 12월 12일 세종학당 기공식을 갖는다.

대지 1100평에 6동으로 세워지는 세종학당은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지는 ‘한국어 전문 학당’이다. 교육 후에는 현지 한국기업 취업 및 한국 방문 취원 기회를 제공하며, 양국 문화교류와 광남성 지역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님은 이번 사업에도 정부 보조금 없이 후원 회원, 베트남 현지기업 협찬, 월남 참전 전우회, 국제연꽃마을 회비, 국내기업 협찬 등 순수한 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현 스님은 “월남전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빈전현 빈호아사에 세워진 ‘한국군 증오비’를 보고 파병국의 국민으로서, 불제자로서 아픈 역사의 인연을 모른 채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업은 양국 친선도모, 한국문화 전파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와 해원(解冤)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제연꽃마을은 전쟁의 피해로 장애를 입은 광남성 시민을 대상으로 의수족보장구 지원사업과 안면기형자 수술 지원, 고령제 피해자 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스님의 복지관(福祉觀)

“지난 시절의 사회복지지는 ‘구휼’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지는 ‘영혼의 안정’입니다.” 20년 넘게 복지 현장에서 얻은 스님의 복지관이다. 스님은 그것을 ‘종교적 사회복지’라고 말했다. 당장 입에 넣을 밥 한 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시대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치유가 모두 필요해진 것이다. 아울러 종교가, 불교가

하는 복지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제 100세를 사는 세상이다. 고(苦)의 시간도 그만큼 많아졌다.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는 스님의 복지관은 100세 시대로 접어들어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라는 생각이다. 그 옛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서쪽으로 10만여 국도를 지난 곳에 극락정토가 있다고 했다. 스님은 그 10만여 국도를 열심히 지나고 있었다.

### 스님의 서원은?

“스님 저서의 서문에서 사문으로서의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서문에서 말씀하신, 하고 싶은 일, ‘원력’은 언제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도 ‘원력(하고 싶은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지요?”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사문으로서 그리움이고 아쉬움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산 속에서 수행하는 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수행자와 실천자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서원을 했다면 원력이든 업력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스님의 서원은 원력인 동시에 업력이었다.

스님을 읽고 나오는 길에 다시 스님의 책에 눈이 갔다. 서문 끝에 읽는다. “내가 베푼 작은 사랑 때문에, 내가 만든 작은 시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가슴에 안고 업파(業波)에 넘실대며 살겠습니다. 소승은 오늘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마음의 방랑자가 되어 노인복지 현장을 맴돕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 스펙 쌓기

제철에 나지 않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던가. 아마 제철이 아닐 경우 혹여 배탈이라도 날까 두려워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곡식이나 과일 따위가 제철보다 일찍 익을 경우 울타리고 한다. 울타리 배도 있고 울타리 과일로 부지기로 생산되는 세상이다. 들뜬이 온통 생광목을 펼쳐 놓은 듯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를 지나노라면 계절도 바꾸어 놓은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 실감하게 된다. 초등학생에게 딸기가 언제 나오는지 물으면 지체 없이 “겨울에요”라고 대답한다고 하던가. 농촌에서는 농한 기간 말도 맺음이 된 듯 하다. 농부의 일손은 쉬없이 움직이고 있으니. 소비자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그 자식들을 부모님이 마련해준 학비를 들고 도시로 몰려든다.

스펙쌓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스펙이란 general의 반대 개념으로 specification의 준말이다. 스펙쌓기는 세태를 반영한 말이다. 취업하기가 어렵다보니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교를 4년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다. 5학년이란 말을 하기도 한다. 적지 아니 다녔던 학교를 휴학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토익점수를 높이기도 하고 회화를 배워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취업면접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시대회에 나아가 상장을 받아 두기도 한다.

사회봉사 활동 경력 쌓기를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쌓기가 대세인 세상이다. 무엇을 쌓는다는 것은 임시변통이 아니라 항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허상일 수 있다.

산행 길에 눈여겨 두었던 소나무가 있다. 유독 소나무에 눈길이 가는 것은 왜일까. 선비의 곧은 뜻과 굳건한 마음의 상징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의 일생을 보면 소나무 집에서 낳고 소나무를 보고 자라 소나무 송판에 싸여 마지막 길을 간다. 그 나무는 무릎 높이 때부터 손질을 해 주었다. 이제 제법 어른 한 길 넘게 자랐다. 지난 태풍에 와선이라도 할 양으로 높고 말았다. 일행과 나무를 세워 놓고 주변 흙을 모아 북돋우고 돌도 가져다 단두리를 하였다.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가 수직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식물의 한 살이에서도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다. 밑바탕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 삶은 단명할 뿐이다. 그러나 더딘 듯 해도 바탕이 견고하면 하늘로 솟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 하다. 옆에 나무가 쭉쭉 자란다고 샘이나 처지나 환경을 망각하고 경쟁 대열에 뛰어 들면 심중팔구는 자신을 망치고 마는 것이다. 바위의 틈을 헤집고 성장하는 그 가름함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나무의 나뭇결은 나이테로 인하여 생긴 무늬다. 여름에 성장한 나이테의 경우 테의 폭이 여유가 있다. 반면에 가을이나 겨울을 지난 폭은

조밀하다. 나무의 습기가 넘친다.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스스로 분배를 타득한다. 조밀한 폭은 뿌리나 가지에 양보하는 깊은 배려가 따른 것이다. 우리가 나이테의 무늬에서 넓은 폭 보다 좁은 폭에 눈길이 머무는 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인고의 침묵 때문이라고 본다. 목재 건축물의 견고성은 인고의 인자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계절의 순환법칙에 거역하지 않고 성장해가는 나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한 해, 두 해의 투자로 뭐 하나 쉽게 이루어질게 없다는 것이다. 일생을 투자한다 해도 성취가 안 되는 일이 많기도 한데. 남이 하는 방식대로 하더라도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진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얼마나 더디고 어렵겠는가. 누구하나 걸어 간 자국이 없으니. 그래도 그 길 없는 길을 갈 때 더디어 걸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언론에 연일 보도 되고 있는 기사가 있다. 황금에 노예가 되어 버린 검사, 색욕에 이성을 잃은 검사, 제 살붙이에게 일거리를 넘겨주는 암치없는 검사. 그들이 주장했던 정의의 척도는 실종되고 매몰된 지 오래된 듯 하다. 그들의 안

### 대학생들 어학점수 높이기만 매진 자신의 색깔 드러내는 청춘 되길

경도 무용지물이다. 안경은 사안이나 사물을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 기능은 사라지고 어찌 청명과니가 되었는가.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그 미치는 파급은 훨씬 크다. 학문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출세의 수단 정도로 여긴다든 연유된 일들이다. 학문을 그렇게 연마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상실된 이성을 찾고 윤곽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학문의 도구화 내지 세속화야말로 누구나 경계해야 할 일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한다. 어느 철학자에게, “당신은 철학을 해서 무엇을 타득했습니까?” 그러자 철학자는 대답했다. “그저 한 가지 ... 어느 누구를 만나도 아무 두려움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묻고 싶다.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대학의 낭만보다 어학점수 높이기엔 시간이 다 갔다고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취업이 현실이니까. 그러나 내가 듣고자 하는 낭랑한 음성이 있다. “신뢰와 정직 그리고 변질되지 않은 우정.” 신의를 저버리면 자신이 만연하기 마련이다. 정적이 매몰되면 위선이 활개를 친다. 우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된다. 세존은 진어자·실어자·여어자·불공어자·불이어자라고 했다. 스펙쌓기의 젊은이들이여, 나는 누구라고 색깔을 드러내 보아라.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안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교당리 473-2

주·야 상담 합니다

##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주크

소형성취 인등 및 사리함

고추구 12B 인자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빠른 접수 10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전선지초(영사용) 달빛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아주 밝은 전선지초(LED방생)

▶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 방생, 탐불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시공**